

지역 소식통

부안군,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관리 점검

부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축산물 취급업소 119개소를 대상으로 이번달 말일까지 축산물 위생(축산물 이력제 특별단속)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위해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운반 기준 준수 여부 등의 위생 점검과 함께 수입 축산물의 국산 둔갑 판매 행위, 축산물 이력제에 따른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한 안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 참여자 모집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정읍새일센터)에서는 취업에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한 구직기술 습득 기회와 취업정보를 제공해 취업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의 구직준비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1회차를 시작으로 18회차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진로 미설정 구직자 대상의 기본과정(5일, 20시간)과 진로 설정 구직자 대상의 심화과정(3일, 12시간)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 직업선택도도검사 등 자기이해를 통한 취업자신감 고취 △ 취업준비도 검사 및 직업정보를 통한 취업진로 설계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클리닉 등 성공 취업전략 등으로 진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한파 피해 예방에 총력”

심덕섭 고창군수, 긴급 ‘대설·한파 대책회의’ 주재... 제설대책 등 논의

심덕섭 고창군수가 “폭설과 한파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23일 아침 7시 40분 고창군은 심덕섭 군수 주재로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대설·한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제설대책 등을 논의했다.

고창지역은 오전 6시 현재 평균 4.3cm(성내면 최대 11.4cm) 적설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날 오전 6시20분부터 대설경보가 발효중이다.

고창군은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도로제설 및 상황관리를 위해 46명을 투입하고 연화칼슘 등 제설제 250t, 덤프·모래살포기·그레이더 등 장비 37대를 동원해 주요 도로 및 경사로, 교량, 결빙지역 등 34개노선 327km 구간의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읍·면에서도 주민제설 봉사단이 1톤 트럭 15대와 207대의 트랙터에 삼남을 부착해 이면도로와 마을 안길 제설에 나섰다. 고창읍 환경미화원 29명도 송풍기를 활용한 인도 제설작업으로 주민 통행에 도움을 줬다.

특히 출근길·등교길 통행을 위해 인도용 제설기가 첫 가동에 들어갔다. 심덕섭 군수는 “인도에 쌓인 눈



고창군은 심덕섭 군수 주재로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대설·한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제설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 추운 날씨로 빙판길이 되면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므로 비탈길이나 직장인·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제설을 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더불어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날이 갠 오전부터 군청 공직자들을 투입해 도심지 취약지역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심덕섭 군수는 “많은 눈으로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설에 만전

을 기해달라”며 “군민과 공직자 모두 앞으로는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집 앞 눈 쓸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심 군수는 “추후반까지 강한 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시설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폭설 내린 정읍시, 제설작업 ‘총력’

23일 오전 8시 기준 최고 22.6cm... 전 직원 담당구역 제설작업

정읍시가 지난 22일부터 내린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발빠른 제설작업에 나섰다.

시는 지난 2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하고 적설량에 따른 신속한 대응조치를 위한 비상대기 체제를 유지해왔다.



정읍시가 지난 22일부터 내린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발빠른 제설작업에 나섰다.

23일 오전 8시 기준 적설량은 입암면 22.7cm, 고부면 18.6cm, 상교동 18.1cm, 소성면 17.7cm, 정읍시내 16.9cm, 등 평균 12.3cm를 기록했다.

이번 폭설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시는 도로 정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 제설을 실시했다.

특히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청과 읍면동 직원들이 나서 담당구역 제설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지역 내 63개 노선 408km 구간의 원활한 교통이 이뤄지도록 모래살포기를 장착한 15톤 덤프 12대 등 제설장비와 연화칼슘 950톤, 소금 1860톤, 모래 5만개 등 제설자재를 사전 확보했다.

제설 취약지구인 철보 구절재와 내장 방산재, 신대인읍 등에는 제설 전 지기지를 지정해 염수 저장탱크에 염수 용액을 배치했다.

이학수 시장은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제설이 필요하다”면서 “시민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이벤트

정읍시, 2월 16일까지 시 공식 SNS 채널에 기부하면 문화상품권 지급

정읍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이벤트를 준비했다.

이번 이벤트는 설 맞이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인들과 연말정산 신고시즌을 맞아 세액공제 혜택을 미리 계획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2월 16일까지로, 정읍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시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혜택으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기부금액 10만원까지 전액공제, 초과분은 16.5%공제), △एम선한 지역

특산품으로 구성된 담례품(기부금액의 30%)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벤트 기간 동안 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기부·채널 구독을 인증하면 총 10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추가로 지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월 22일에 시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설 명절 이벤트를 통해 고향의 큰 의미를 되새기고, 따뜻한 참여와 기부로 뜻깊은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한다”며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추모의집, 설 연휴 이후 리모델링

올해 1억원 예산 들여

고창군이 설 연휴 이후 고창군 추모의집의 노후화된 시설물 리모델링에 돌입한다.

지난 2004년에 설립된 고창군 추모의집은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내부 바닥타일과 조명을 교체하고 냉·난방기를 구입할 예정이다. 내부도장과 지붕 개·보수 등을 연차적으로 진행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공사는 봉안당을 방문하는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휴무없이 부분적으로 진행된다.

고창군 추모의집은 안치가능한 1만 기수 중 4918기수가 이용 중이다. 연중무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기수당 1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유골함을 10년간 안치할 수 있으며, 기간은 5회 연장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추모의집

고창군은 봉안당 1개소 뿐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무장늑두수자연장 및 고창푸른숲자연장 등 자연장을 2개소 또한 운영 중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점점 장묘문화가 매장방식에서 봉안 또는 자연장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장사시설의 기능개선에 힘써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관내 학교 3개소 학교숲 조성

총 3억원 예산 투입 추진키로

부안군은 학교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함으로써 학교육의 환경개선 및 녹지량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학교숲을 관내 학교 3개소(부안중학교, 줄포중학교, 하서중학교)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학교를 선정하고 협약체결을 완료했으며, 3월까지 실시계획을 할 예정이다. 숲이 있는 학교가 숲이 없는 학교보다 학생들에게 집중력, 호기심, 정서적 균형 등 교육적인 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아이들의 공격성 완화에도 유용하다고 밝혀졌다.

현재까지 관내 학교 43개소 중 20개소(초등학교11, 중학교5, 고등학교4)에 조성사업을 완료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 보조사업으로 1개 학교당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숲을 조성하였으나 숲에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1개 학교당 1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숲을 조성한다.

부안군청 김기원 산림정원과장은 “학교숲 조성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 및 정서함양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부안군 녹지지역을 확장시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그린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